

# M·Heidegger의 前後期 思想과 聖經解釋學

이 보 민  
〈教授 · 倫理學〉

Bultmann은 신약성경이 저자들의 믿는 바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비해 소위 후기 볼트만주의자(Post-Bultmannian)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Fuchs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강조한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역사적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Bultmann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해석학은 역사적 예수님께 적합한 방법이며 역사적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해석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Fuchs는 모든 성경의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건이라고 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한다. 얼핏 보면 Post-Bultmannian인 Fuchs는 Bultmann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온 것 같다. 사실이 그러한가?

흔히 말하는 대로 Bultmann은 Heidegger의 전기(前期)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Fuchs는 그의 후기작품에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하이데거의 전, 후기작품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Fuchs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간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1. 철학적 해석과 Heidegger의 철학

우선 Heidegger의 철학을 해석학적인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소위 해석학(Hermeneutic, 성경적 해석학과는 다른)이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학이란 본래 역사의 문서가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리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적인 역사이해는 과거적인 역사문서를 현재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전통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런 계몽주의적인 비판정신을 다시금 비판하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낭만주의에서는 무조건적 비판적 이성보다는 상호의존하는 감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화를 중하게 여긴다. 이것은 바로 과거적 전통에 대한 친근감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따라서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권위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낭만주의적 역사해석은 과거적 전통을 고유의 것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역사상황을 해석함으로써 계몽주의적인 해석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런 역사해석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지니게 되었다. 19세기는 경험과학의 발달로 인해 재래식 철학이 점차 조롱을 받게 되는 때이다. 당시의 철학은 Hegel에 의해 가장 방대하고 깊고 어려운 경지에 달했는데, 이것이 자연과학적인 학문방법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Hegel의 철학이 방대하고 전포괄적인 것은 좋으나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런 철학은 과학 또는 학문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학문이라고 할 때는 자연과학만이 학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사실 그럴 것인가? 자연과학이 아닌 학문은 없는가? 소위 정신학문이란 없는가? 이때에 W. Dilthey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를 바로 그 정신학문으로 삼고자 한다. 즉, 역사해석학이야말로 자연과학이 아닌 학문이 된다는 것이다.

우선 역사문서란 대단히 구체적인 것의 기록이다. 그렇다고 역사문서가 그렇게 방대하고 전포괄적인가? 즉 이런 역사문서 해석을, 옛날의 Hegel의 방대한 철학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학문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달타이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역사문서를 바로 인간 생의 표현으로 환원 시킴으로서 그것의 포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역사문서 해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는데, 역사해석이 이때까지는 인간의 이성적 원리 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문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생을 행하는 인간 자신이 결부되어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해석으로 생각되어지게 되었다. 과거중심이나 현재중심도 아닌, 과거와 현재가 모두 인간 생의 포괄적 표현이므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의 문서 역시 다른 사람의 것이긴 하지만 생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생을 영위하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 내가 이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이런 식으로 유일한 비자연과학적인 학문인 역사 해석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 차츰, 그런 역사해석학이란 학문은, 결국은 시대에 따라 간헐적으로 인간이 표현하거나 만들어 놓은 바인 역사현상이란 것만을 학문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절대적원리 포

착을 담을 수 없는 일종의 상대주의적인 학문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더욱 본질적인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움직임이 생긴다. 흘러가는 어떤 역사현상으로서의 표현이 아닌 시간 속에서 나타나지만 시간에 구애안되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이 Husserl의 현상학적 움직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Husserl의 고민은, 본질적인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보려니까 그것은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것이 되어 과학적 방법이 아닌 상상의 대상밖에 안될 것 같고, 반대로 학문다운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찾아 보려니까 역사현상, 심리현상과 같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본질적인 것이면서도 어떤 구조적인 분석을 행할 수 있는 학문의 대상으로서 자의식을 택한다. 그렇다고 심리학적인 자의식을 학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의식이 경험 세계속에서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바의 그와 같은 관계의 구조를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경험적 대상을 향하는 인간자신의 지향적(指向的) 의식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성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가를 보이는 학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한 바의 해석이 아닌 자기의 의식을 어떻게 구현해 보일가 하는 학문이다.

이때에 나타나는 자가 Heidegger이다. 그는 철학은 Husserl의 경험과 같이 바로 자기에 대한 연구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구현을 나타내 보이는 학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기에 주어지는 의미와 또 그 의미가 자신에게 어떻게 수용되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Heidegger는 Husserl과 Dilthey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Heidegger의 학문은, 전술한 Dilthey가 과거의 생의 표현으로서의 역사문서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듯이, 나에게 전해지는 의미를, 또 그 의미가 어떻게 나의 의미가 되어지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내게로 나타나는 의미나 나의 것이 된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자기이해를 행하게 되는 학문이 바로 하이데거의 철학이다. 다시 말해서 하이데거의 입장은, 딜타이가 말하는 역사문서의 의미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속 또는 세상 속에 있는 존재자가 인간인데 바로 그 인간존재자에게 나타나서 그 자신의 의미가 되어진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에게 나타나는 의미의 해석은, 다른 존재자라고 하는 존재자는 누가 준 의미를 이유로 해서, 또는 목적으로 해서 존재자인가를 해석하는 일인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과거의 철학은 존재자의 목적과 이유를 추구하는 일은 나라는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를 추구함으로써 행했다고

한다. 그와 같이 선(善), Idea, 신이니 하는 존재자의 추구로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일은 거기에 어떤 개연성이 개입되며, 그로 인해 그일은 인간존재가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된다. 하이데거는, 그들의 소위 인간존재자의 근원의 추구는 또다른 존재자의 추구로 이어질 뿐이라고 보면서, 또 하나의 다른 존재자가 아닌 존재 그 자체를 또는 존재(Sein)를 추구하므로 인간존재자에게서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존재자에게 나타나는 의미의 해석은 다른 존재자의 추구가 아닌 존재 바로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존재란 실제로 무엇인가? 이것은 결코 객관적인 사물이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개념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는, 우리 인간존재자가 존재할 의미를 주는데 그 존재란 결코 우리가 구성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일 뿐이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그 존재가 우리에게 호소해 온다는 것이다. 그 호소가 받아들일 때에 즉 그 호소와 인간존재자가 Channel을 같이 할 때 그 호소는 인간에게 의미로서 나타난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존재자가 어떠한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중시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前期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 2. 하이데거의 前期 思想과 성경해석학

우선 인간존재자는 자신의 기준으로 고정되어진 바의 자신의 어떤 특정 형편과 자기자신을 그대로 일치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존재자 만이 부각될 뿐이다. 존재자 아닌 존재가 호소해 올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이미 기존 존재자로 형성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지금의 형편이 아닐 수도 있는 자신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우선 존재의 호소에 자신을 맞추어 그 호소가 의미를 지니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재자는 생각하는 존재자이어야 한다.

생각하는 존재자란 인간존재자 밖에 없다. 생각함이 바로 존재가 인간에게 의미있게 나타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존재자는 다른 존재자들과 상호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때에 다른 존재자들은 나와 대립자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생 학생이고 저 사람은 항상 교수라고 한다면 어딘지 좀 보기도 싫고 거리감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좀 있으면 나도 교수가 될 수 있고 저 교수보다 더 훌륭한 교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저사람을 미워하거나 대립자로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인간존재자는 다른 존재자와 대립보다는 하나의 세상(Welt)을 이

루게 된다. 이런 인간존재자는 다른 존재자와 더불어 하나의 활동 무대를 이룬다. 이런 뜻에서 인간은 세상속의 존재가 되고 그 세상속이라 함은 인간존재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의 존재자를 Dasein 또는 Existenz 라고 부르는데 그런 인간 존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 우선 인간 존재자는 지금 “무엇”이지만 과거에는 “무엇”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 인간존재자에게 늘 있게 된다. “다른 존재자와 더불어 그 무엇이었다”고 하는 것이 현재적 형편에 고정되지 않은, 즉 생각할 수 있는 인간존재자의 어떤 모습을 이룬다. 이런 요소를 Befindlichkeit 라고 한다.

동시에 인간존재자는 고정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존재자이므로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구한다. 인간자신이 마땅히 어떠한가 함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적 형편 이상(以上)의 것으로 초월하고자 한다. 이것은 생각하는 인간존재자에게 가장 으레히 있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이것은 당위의 추구이다. 이렇게 당위(Sollen)를 추구하는 인간존재자의 모습을 이해(Verstehen)라고 부른다. 또한 생각하는 인간존재자는 “무엇”이었다고 하면서 세상속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한편 자신의 자신인 바를 초월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이 두가지가 조화되어 “무엇이 되어 가고 있음”의 모습이 인간존재자에게 나타난다. 그것의 표시가 곧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즉 말(Rede)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인간존재자의 모습이다.

이런 세가지 모습을 지니는 인간존재자 Dasein은, 한마디로 고정된 하나의 가능성에 자신을 고착시켜 객관적인 존재자로 만들지 않고, 즉 다른 존재자와 적대관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속 존재자로서 생각하는 존재자로 나타나는 데, 인간이 이런 존재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가능성보다 더욱 분명하면서도 아직 아무에게도 실현되지 아니한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섬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존재자에게 존재, 즉 객관적으로 우리가 밝혀 볼 수 없는 존재(또는 존재 그 자체)가 호소해 오며 그 호소해 오는 호소와 Channel을 같이 하는 생각하는 인간존재자인 Dasein에게 그 존재의 호소는 의외로 나타난다고 본다. 아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Heidegger가 생각한 인간에게로 나타나서 인간의 것이 된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존재가 인간에게 의미해 오도록 준비하여 기다리는 일이 된다. 즉 인간존재자가 어떤 구조 속에 있어야만 그의 의미가 호소해 올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Heidegger의 일이었다고 이것이 그의 전기의 관심이다.

그러면 실제 그와 같은 인간존재자에게 존재가 과연 의미를 주면서 호소해 오는가?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이며 하이데거는 그의 전기작품에서 그렇게 호소해 올 것을 기대하고 그 호소를 받을 수 있는 인간존재자의 모습을 연

구 했을 뿐이다. 바로 이 전기 하이데거의 연구를 Bultmann이 신약성경 해석에 적용했다고 본다. 성경은 우선 저자들의 믿는 바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봄에 있어서 그들 성경저자들의 존재자로서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Heidegger가 말하는데로 어떤 객관적인 가능성에 고착되지 아니한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존재자들의 존재자로서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데로 어떤 객관적 가능성에 고착되지 아니한 진정한 의미의 존재자로서의 인간존재자들의 믿는 바와 표현하는 바는 그것이 때로 객관적 원리에 따라 볼 때 거짓말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들 저자들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와 같은 존재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들의 글을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3. 하이데거의 後期思想과 성경해석학

그러면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가서, 도대체 하이데거의 생각대로 인간존재자가 객관적 가능성에 자신을 고착시키지 않은 그런 존재자로 남아 있을 때 진정으로 존재 그 자체가 호소해오는가? 그렇지 못하다. 존재가 무엇이길래 호소해 오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존재의 호소를 받아드릴 인간존재자의 모습을 연구한 그의 전(前)기적인 노력은 갑자기 중단된다. 1927년의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의 작품외에는 그같은 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이데거식 인간존재자는 아무런 객관적 가능성에 자신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또 오히려 죽음앞에 서있는 인간존재자이므로 허무주의 인간존재자 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그의 이성적 추구의 결과로 허무에 봉착하면, 그 이성적 추구를 갑자기 중단하고 자기만의 의미를 자기가 확립하고자 함을 우리는 계속 철학사에서 볼 수 있다. 전기 하이데거에서 연구된 인간존재자가, 존재자 그에게 호소해 오지 않음으로 허무(Nihil)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자 하이데거는 나름대로 자기가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서 또는 지적하면서 “저것이 내게로 향한 의미이며, 존재이요”하고 나서는데 이것이 바로 후기 하이데거의 모습인 것이다. 존재가 스스로 호소해 오지 않자 “언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면서 언어가 바로 인간존재자에게 본질적 의미를 주고 호소해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상 속에서의 인간의 편리에 따른 또는 인간의 논리에 따른 인간소유의 언어가 아닌 이 시대에 흐르는, 이 세계에 이미 있는 말 없는 언어, 즉 우리가 만든 언어가 아닌, 언어 그것이 먼저 있어서 호소해 오는 바의 언어(그것을 하이데거는 시적인어라고 함) 바로 그 언어가 우리를 인간존재자로 이끌어 나가고 또한 의미를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 언어는 어떤 말한 사람이, 즉 말을 만든 존재자가 미리 있는 언어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어떤 존재자가 그 언어의 원인자라고 한다면 본래 하

이택거의 존재의 추구는 존재자의 추구로 전락될 뿐이다. 인간이 만든 언어가 아닌, 무엇인가 그 시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의 언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 언어란 어떠한 존재자도 만들지 않은 그런 것인가? 언어란 오히려 나를 위시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하이텍거 자신이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시적언어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못알아 들어도 저것이 내게 나타내는 존재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허무에 빠질 때 남이 인정하든 안하든 자신만의 의미를 부르짖는 바로 그런 몸부림을 하이텍거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간단하게 요약된 하이텍거의 후기에 있어서의 자세인데, 바로 이것을 따르는 것이 Fuchs나 Ebeling과 같은 Post-Bultmannian이라고 불리는 성경해석가들이다.

그들이 전술한대로, 성경해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듯하며 또한 그 말씀자체를 그들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가 과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행하신 말씀을 받아드림으로써 성경으로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생긴 것인가? 아니다. 바로 후기 하이텍거에서의, 언어가 먼저 있어서 그것이 인간존재자에게 호소해 온다는 그와 같은 언어를 성경해석에 적용시킬 뿐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 존재자에 의해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언어 그 자체의 호소해 움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술한대로 자신의 전기적인 허무를 벗어나고자 하는 하이텍거의 노력의 산물과 일치하는 것이다.

Fuchs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냥 떠돌아 다닌다는, 그 시대에 이미 있었던 언어일 뿐이다. 그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 낸 말인 것이다. Fuchs가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경으로 바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적 계시의 호소를 거부하는 하이텍거가 허무앞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기위해 저것이 내게 의미를 준다고 하면서 지적해 놓은 그런 식의 언어 그것이 바로 Fuchs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일 뿐이다.

끝으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그분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말씀으로 받아 드릴까? 우리는 흔히 인간자신의 허무를 깨닫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설교같은 데서 인간의 무상함에 대한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하이텍거가 허무 속에서 발견한 언어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도 바른 성경해석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써 믿는 자만이 이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이다.

## 목회상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고찰

김 병 원  
(助教授 · 實踐神學)

### I. 목회상담의 의의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은 목회자의 활동분야의 일부분으로서 설교와 가르치는 일이 주로 공적이고 일방적인데 반해 상담은 개인적이며 쌍방적인 일이다. 설교와 가르침은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고 신자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장케 하는 일을 하게 하며 상담은 불신자가 그리스도에게로 오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시키는 일을 한다. 예를들면, 설교와 가르치는 일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이고, 상담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Public)인 행위를 통하여 해결을 받지 못할 일을 사적(Private)이고 개인적(Personal)인 행위를 통하여 해결받을 일이 많다.

인간은 누구나 제한된 힘을 가지고 죄악과 고통이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을 소유하고 있다. 상담이란, 일방적(one-directional)이며 표면적으로만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단순한 충고(advising)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행동의 중요 변화에 목적이 있는 정신요법(精神(心理)療法: Psychotherapy)도 아닌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영적 심리적 상호작용(A spiritual-psychological Inter Action)이다.

목회활동에 있어서 상담의 중요성은 고조되고 있으며 교인들이 목회상담을 위하여 목회자를 찾는 인식도도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리 코린스(Ga-